

이끼의 숲

시카리베쓰호 주변 숲은 이끼로 덮여있으며 이 주변의 풍혈이 있는 울퉁불퉁한 사면에서도 이끼가 자라고 있습니다. 이끼가 빗물을 흡수해 땅에 수분이 유지되면 주변 환경의 습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도 잘 자랍니다. 이끼가 풍혈에 단열 효과를 발휘해 봄부터 여름까지는 얼음이 녹는 속도를 줄여주고, 가을과 겨울에는 야생생물에게 어느 정도의 온기를 제공해 줍니다.

시카리베쓰에서는 아고산성 식물인 이끼와 습지에서 자라는 물이끼류처럼 일반적으로는 함께 볼 수 없는 이끼류가 서로 가까이에서 자라 공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공기가 습한 풍혈 주변 등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.

특유의 이끼류

전 세계에 1 만 종 이상 존재하는 이끼류 중 1,600 종이 일본에서 발견되며, 그중 대부분이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에 서식하고 있습니다. 지질공원에서 자라는 고유종에는 구슬이끼, 타조이끼, 발광이끼가 있으며, 이외에도 여러 종의 물이끼 고유종도 서식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구슬이끼는 풀 같은 이끼로 수 센티미터 정도 길이의 줄기와 사과 모양의 포자낭이 윗부분에 붙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타조이끼는 날개 같은 엽상체의 줄기가 특징입니다. 타조이끼는 일본 각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며, 시카리베쓰의 풍혈 부근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발광이끼는 반짝이는 이끼로 바위틈의 좁은 공간이나 풍혈 속, 또는 나무 구멍 등 어두운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. 그들이 지면 밝은 녹색으로 빛납니다.

물이끼와 피트모스는 습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끼입니다. 침엽수림과 습윤한 툰드라 지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시카리베쓰의 산악지대에서는 밀집해 자라기 때문에 브로콜리처럼 생긴 작고 붉은 피트모스와 잎끝에 별 모양의 송이가 있는 5 등급 물이끼 등 6 종류의 물이끼류가 확인됩니다. 물이끼는 붉은빛이 도는 녹색 물이끼와 붉은색 물이끼가 존재합니다.

시카리베쓰호 지역은 일본선태류학회에 의해 귀중한 이끼 숲으로 지정되었습니다.